

우간다 아동은 어떤 놀이를 할까요?

킴스 초등학교의 쉬는 시간, 운동장은 즐겁게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놀이기구가 부족한 우간다의 아동은 어떤 놀이를 할까요?



축구

우간다의 남자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축구입니다.
하지만 장비가 잘 갖추어진 구장에서 축구를 신고 멋지게 공을 차는 우리나라 아동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축구공을 구하기 어려운 우간다의 아동들은 쓰레기를 돌돌 말아 만든 공을 맨발로 차며 경기를 합니다. 빗물에 진흙탕이 된 운동장에 옷과 발이 엉망이 되지만 아이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새총놀이

새총을 만들어 작은 동물을 잡거나 표적을 맞추는 놀이도 즐겨합니다. 나뭇가지와 고무줄을 엮어 Y자로 만든 새총에 진흙을 동그랗게 말린 총알을 장전한 후 표적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나뭇가지와 고무줄로 만든 새총을 목에 걸고 다니는 아동들을 볼 때면 새총놀이가 한참 유행했던 우리나라 70년대가 떠오릅니다.



고무줄놀이

남자 아동에게 축구가 있다면, 여자 아동에게는 고무줄놀이가 있습니다. 우간다의 고무줄 놀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래를 부르며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실수 없이 정해진 발동작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요. 노래 없이 조용히 집중하며 고무줄놀이를 하는 모습이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는 짓궂은 남자 아동들을 보니 우리의 모습과 닮아 더욱 정겹습니다.

오랜 내전과 정치 불안정으로 상처가 많은 우간다이지만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 상처를 딛고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알립니다!

1. 밀알복지재단에 도착한 회원님의 편지는 번역 과정을 거쳐 2016년 1월에 사업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2. 회원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 또는 1600-0966(회원전용번호)를 통해 정보를 변경해 주세요. 변경된 주소지로 후원해주시는 결연아동의 소식이 발송됩니다.



밀알복지재단

(135-884)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고개로 1길 34, 2층(수서동)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회원전용번호 1600-0966 회원메일 membership@miral.org www.miral.org



세번째 이야기

우간다 사업장 소식

 밀알복지재단

꿈꾸는 새싹들 이야기

사업장 굴루

아동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초등학교 부속건물과 담장을 건축하였습니다. 상담실, 보건실, 교무실이 있는 부속건물이 완공되어 아동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을 받고, 아플 때마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수업을 준비할 공간이 생겨 아동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800M 길이의 담장을 건축함으로써 그동안 무방비했던 동물과 이방인의 침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약 200M의 담장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부속건물 및 담장 건축



운동회



사업장 캄팔라

마땅한 놀 거리가 없는 우간다 아동들을 위해 2015년 7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총 200여 명의 아동과 15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들은 아빠와 다리 묶어 달리기, 엄마와 풍선 안고 달리기 등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에 즐거워했습니다. 운동회가 끝날 무렵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선물금으로 마련한 줄넘기와 배드민턴을 상품으로 받은 아동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는 운동회를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심신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음악 경연 대회 참가



사업장 굴루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70명의 아동들이 김초등학교 대표로 음악 경연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두 달 동안 전통음악, 전통춤을 비롯하여 합창, 시 낭송, 연극까지 준비하는 아동들의 두 눈은 어느 때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회원님의 후원으로 멋진 교복을 맞춰 입은 아동들은 다른 학교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비록 예선에서 3위를 하며 전국 대회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순위를 떠나 친구들과 멋진 옷을 입고 즐길 수 있었던 이 대회는 아동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재봉교실



사업장 굴루

굴루 사업장에서는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은 우간다 청소년의 자주적인 삶을 위해 재봉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배우 강수연씨의 후원으로 시작된 재봉교육은 올해 첫 작품 판매가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자립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작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재봉틀을 한 대 더 구입하였으며, 다음 재봉교실 참여 학생을 위한 기금 마련에 일조했습니다. 또한 재봉틀을 차에 싣고 다니며 무료로 옷을 수선해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봉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의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빵 공장 견학



사업장 캄팔라

2015년 8월, 골든베리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중인 60여명의 아동은 빵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빵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열심히 기록하고 배우는 아동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견학 후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아동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간다(캄팔라)에서 온 편지



대부분의 우간다 아동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지방으로 내려간 아버지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동들은 시골에서 온 먼 친척과 밤을 지새우거나 옆집에서 나누어 준 옥수수떡과 콩으로 하기를 달래곤 합니다. 우간다 아동에게 어두운 아프리카의 밤은 외롭고 무섭지만 합니다. 하지만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사랑과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아동들은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보내주시 편지와 선물을 통해 회원님과 같이 사랑을 나누는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간다 캄팔라 사업장 프로젝트 매니저 안정숙 드림

COMING
SOON

새싹들의 다음이야기

유치원 졸업식(캄팔라, 굴루)

학부모님을 모시고 아동의 발표회와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

아외소풍(캄팔라)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소풍을 갈 예정

직업체험 프로젝트(굴루)

명사 초청 특강 및 우간다의 수도(캄팔라) 견학을 실시할 예정

SBS 희망학교 프로젝트 교실 증설 및 중학교 건축(굴루)

SBS 희망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김초 초등학교의 교실을 증축하고 중학교를 건축할 예정